

조선시대에도 웨딩플래너가 있었다?

청사조롱 불밝혀라

2026. 8. 22. ~ 9. 13.

국립정동극장



"언제쯤이면, 어느때가 오면 모든 인연이 사랑받게 될까"

웹프로그램북에 게재된 모든 글,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서울예술단 및 해당 저작자에게 있으며, 저작자의 허가 없는 재사용(복제, 재편집, 2차 활용, 개인 SNS 및 웹사이트 게시 등)은 불가합니다. 비영리·학술적 용도로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서울예술단 공연기획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2-523-0986-7



조선시대에도 웨딩플래너가 있었다?



청사초롱 불 밝히려



목 차

환영의 말	p. 02
<청사초롱 불 밝히려> 공연 연보	p. 04
줄거리	p. 05
출연진 소개	p. 06
뮤직 넘버	p. 19
인물관계도	p. 23
<청사초롱 불 밝히려> 용어사전	p. 24
창작진의 글	p. 25
김정민 작가 × 성찬경 작곡가 인터뷰	p. 34
연습 스케치	p. 37
공연사진	p. 40
크레딧	p. 47
서울예술단 소개	p. 50
악보	p. 52

환영의 말

서울예술단 창작가무극 <청사초롱 불 밝히려>의 재연 무대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는 창작 공연은 수많은 도전과 치열한 고민을 동반합니다.

더구나 원전이 없는 아이디어를 글과 몸짓, 노래와 연기로 만들어내는 일은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소중한 예술적 발걸음입니다.

<청사초롱 불 밝히려>는 창작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우수 창작극입니다.

우리 서울예술단은 신진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유쾌하고 행복했던 작업과정, 정해진 틀을 벗어난 배우들과 창작진의

진솔한 협업 자체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작품을 국립정동극장과와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관객과 예술로 교감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국립예술기관의 연대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넓히고 더 많은 국민을 찾아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예술단은 지역공연 확대를 통해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창작과 나눔의 길을 함께 열어하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열정을 보인 우리 단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창작의 길을 완주해 주신 창작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관객분들도 새로운 무대 위에서 진정한 감동과 영감을 만나시길 바라며,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서울예술단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레퍼토리 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국민과 함께하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 서울예술단 단장 겸 예술감독 **손재오**

환영의 말

안녕하십니까?

국립정동극장 대표 서승만입니다.

국립정동극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청사초롱 불 밝혀라」를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청사초롱은 예로부터 어둠을 밝히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는 아름답고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불빛이 대한민국 공연예술의 중심인 이곳 국립정동극장에서 밝혀집니다.

국립정동극장은 우리 근현대사의 수많은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 역사와 전통을 오늘의 무대 위에서 되살리고, 내일의 예술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우리 전통예술이 가진 흥과 멋,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 민족의 깊은 감동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사초롱 하나의 불빛은 작아 보이지만 그 불빛들이 하나둘 모이면 어둠을 밝히는 큰 빛이 됩니다.

오늘 이 무대의 불빛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기를 바랍니다.

국립정동극장도 우리 전통예술의 아름다운 불빛을 꺼뜨리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먼 미래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라도 모든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소리와 몸짓, 흥과 멋에 마음껏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동의 밤을 밝히는 청사초롱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환한 불빛 하나가 켜지기를 바라며,

「청사초롱 불 밝혀라」의 멋진 무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 서 승 만

<청사초롱 불 밝혀라> 공연 연보

2023년 2월

제2회 서울예술단 '한국적 창작가무극 콘텐츠 공모' 선정

2024년 6월

제2회 서울예술단 창작가무극 공모 선정작 낭독공연

2025년 11월

국립정동극장 초연

2026년 4월~8월

보성, 제주, 함안, 남양주 4개 지역 투어

2026년 8월

국립정동극장 재연



줄거리



조선 최고의 혼례 업체 '청사초롱'. 청사초롱의 행수 윤덕은 타고난 미적 감각과 카리스마로 청사초롱을 이끌어 가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혼례를 만들어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어느 날 윤덕을 찾아온 노들은 과부인 자기 어머니의 혼례식을 올려 달라 의뢰한다.

하지만 현재는 과부의 재가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

잘못하면 청사초롱마저 곤란해질 수 있기에 수두매는 난색을 표하지만,
윤덕은 노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진 후 그 답을 가져온다면 의뢰를 받아들일겠다고 한다.

한편 청사초롱을 찾아온 청나라에서 유명한 상인 로랑과, 그의 통역사 지남.

로랑은 윤덕에게 청사초롱을 인수해서 세계적으로 키워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지만, 지남의 통역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다.

지남은 로랑에게 청사초롱을 차지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알려주고, 노들의 답을 들은 윤덕이 그의 의뢰를 받아들이며
청사초롱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노들 | 이기완

출연진 소개

과부 어머니의 혼례를 의뢰하며 청사초롱의 문을 두드린 청년





노들 | 이한수

출연진 소개

과부 어머니의 혼례를 의뢰하며 청사초롱의 문을 두드린 청년



윤덕 | 김건혜

출연진 소개

조선 최고의 웨딩플래너이자 청사초롱의 행수



Handwritten signature of Kim Gunh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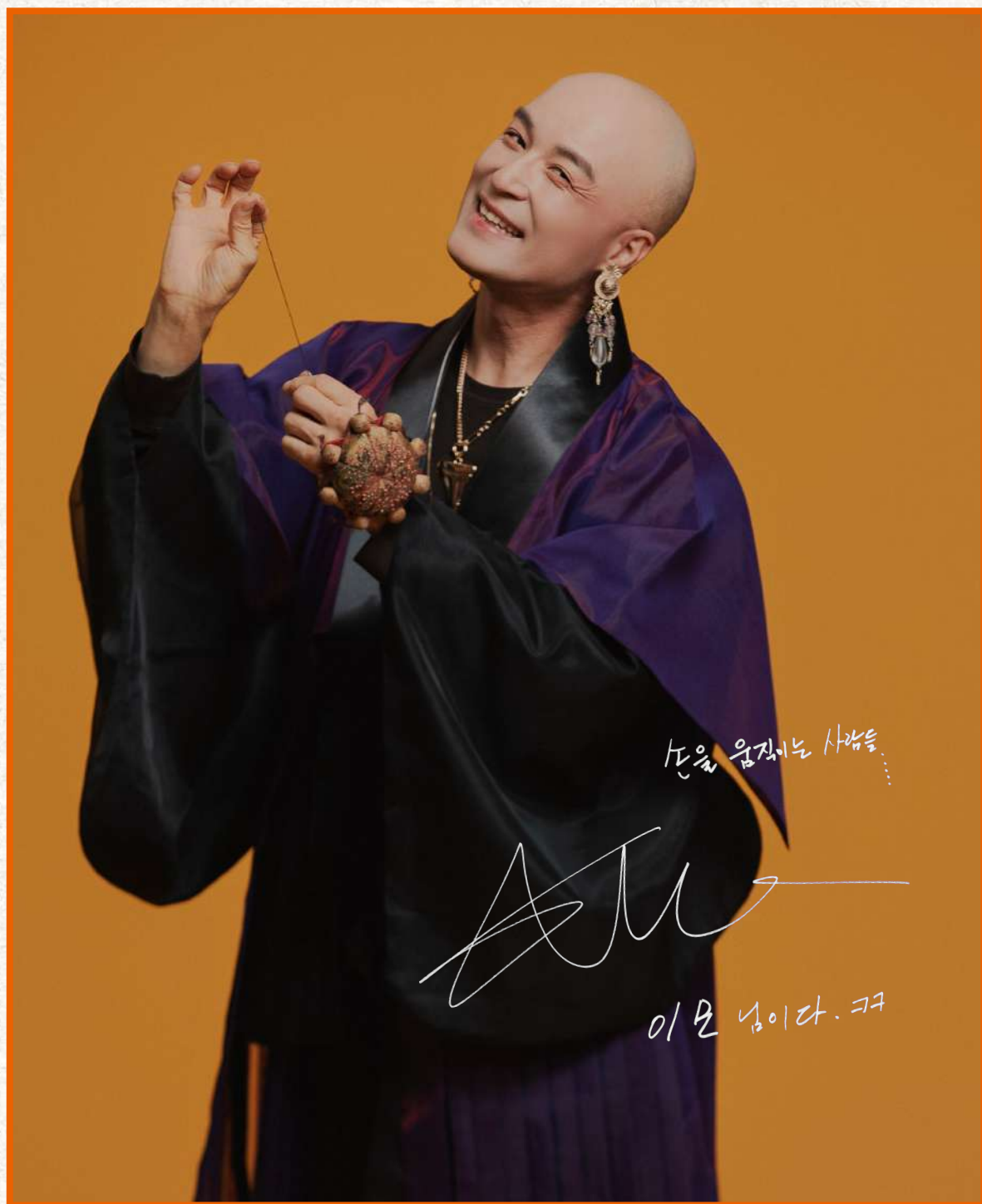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이다."

건혜행수 ♡

수 임오 | 고석진

출연진 소개

수두매의 리더이자 전설의 헬퍼



손을 움직이는 사람들...

[Handwritten signature]

이 문 남이다. ㄱㄱ

② 이철 | 안재홍

출연진 소개

청나라 유학파 조선의 가위손



늘 행복하세요!

(Handwritten signature)

이철!

매 곤지 | 윤태호

출연진 소개

사랑을 빛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양평 | 박재은

출연진 소개

청사초롱의 축하 담당



재은 양평 ♡
양평이 가평이 축하 드려 안전 제기!!

가평 | 서연정

출연진 소개

청사초롱의 축하 담당



-가평 연정-
축하 부탁하실 분?! ♡

로랑 | 정지만

출연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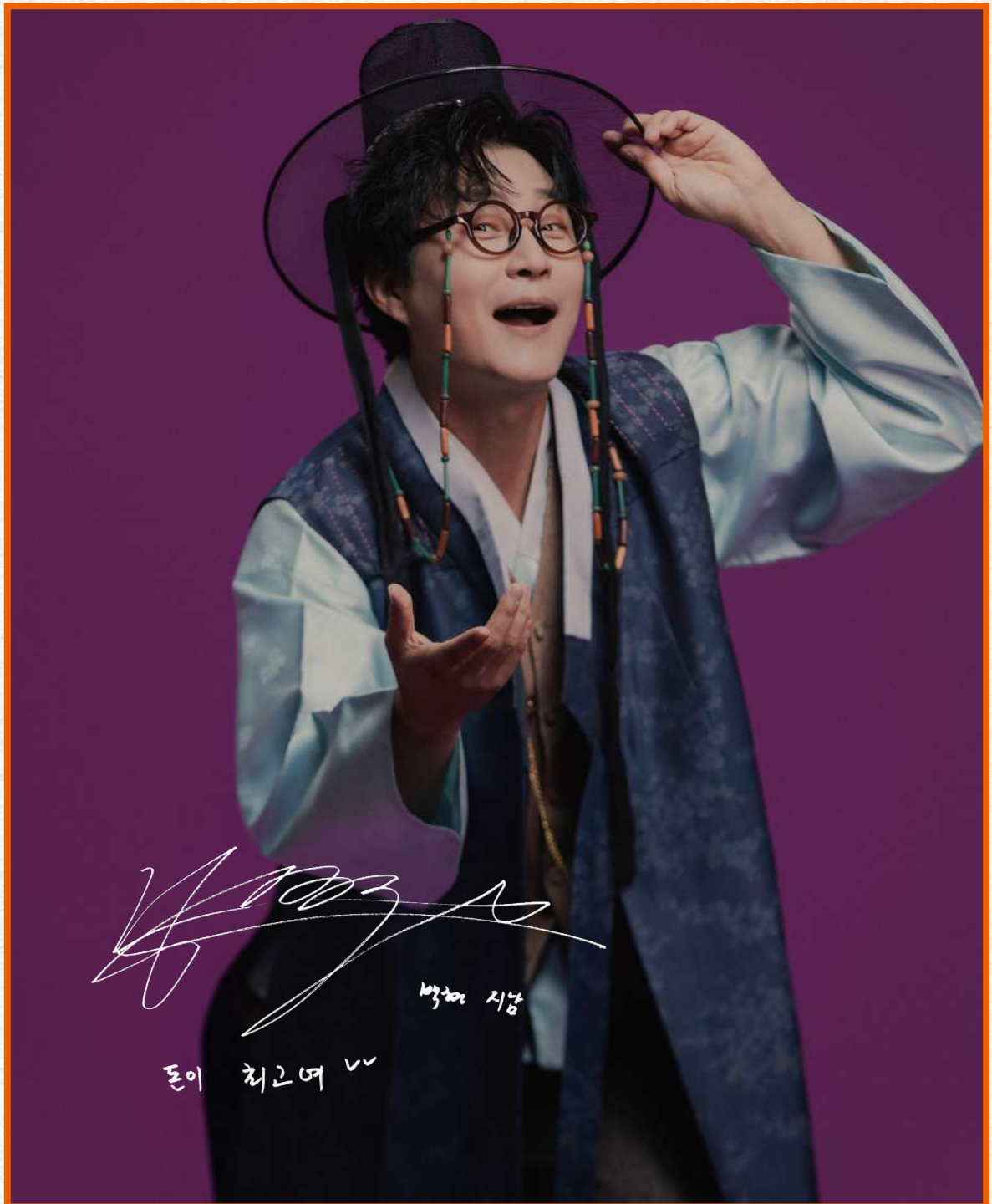
청나라의 거부이자 상단의 주인



지남 | 김백현

출연진 소개

청나라 사절단을 담당하는 역관이자 로랑의 통역사





노들엄마 | 유경아

출연진 소개

과부로서 혼자 주막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온 어머니



유경아

노들엄마.

노들네 국밥 드시러 오세요 ~ ♡

도희아빠 | 최병규

한양 최고의 꽃신 장수

출연진 소개



도희엄마 | 오현정

한양 최고의 꽃신 장수

출연진 소개





넘버 리스트



M1. 청사초롱 불 밝혀라

M2. 은밀하게 성대하게

M3. 언제쯤이면 어느 때가 오면

M4. 하오 하오 어찌 하오

M5. 노들네

M6. 비단, 장단, 염단

M7. 혼인

M8. 최고의 손님

M9. 최악의 손님

M10. 사연 없는 사람 없지만은

M11. 비단, 장단, 결단

M12. 우린 수두매

M13. 아껴두고 싶지도 않은 말

M14. 연등 켜세

M15. 청사초롱 불 밝혀라 rep.





M1. 청사초롱 불 밝혀라 - ALL CAST

김정민 작사 | 성찬경 작곡

[윤덕] 당신과 눈뜨는 아침을 귀하게 여기리다
당신의 쓰디쓴 저녁을 함께 나누리다
[노들] 바다와 태양이 만난 청사초롱처럼
손과 손 맞잡고 등과 등 기대고
[노들/윤덕] 빛이 비추는 곳으로 가소서
[다 함께] 청사초롱 불 밝혀라 긴 인생 두 번은 못 밝힐 불
청사초롱 불 밝혀라
짧은 인생 손 맞잡고 시작하는 날 불 밝혀라





M3. 언제쯤이면 어느 때가 오면 -노들

김정민 작사 | 성찬경 작곡

짚신도 짚이 있다 말한 사람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운명의 짝을 만나도 그중에 어떤 인연은
세상의 축하도 받지 못한다는 걸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을 만나도
따지고 따져야 할 게 너무나 많네
마음이 흐르는 대로 자연스러운 그대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언제쯤이면 어느 때가 오면
모든 인연이 사랑받게 될까

그때쯤이면 그 때가 오면
작은 바람에 맘껏 흔들려도 될까

커다란 강을 내려다보는 노들처럼
지푸라기를 벗 삼아 시간을 따라
천천히 곳곳이 그 날을 향해

언제쯤이면 어느 때가 오면
모든 인연이 사랑받게 될까
그때쯤이면 그 때가 오면
작은 바람에 맘껏 흔들려도 될까





인물관계도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프렌즈 윤규인



과부재가금지법

1477년(성종 8년)에 처음 실시된 제도이며, 양반 가문의 여성들에게 적용됨
과부가 재혼을 한다면 자녀들은 관직에 등용할 수 없다는 '금고법'에 따라 간접적인 재혼 금지를 가지고 온 법령
과부들의 재혼은 1894년(고종 31년)부터 다시 허용됐다고 함

원앙

암수가 함께 다니고, 평생을 한 쌍으로 살아가는 새
'부부 금술' 및 '화목한 가정'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
Tip! <청사초롱 불 밝히려> 공연 중간에도 잠시 등장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봐주세요!

꽃신

상류층 여성들이 주로 신고 다닌 신발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기도 함
극 중 도희네가 윤덕에게 전달하는 물건

신시 (申時)

15시 ~ 17시를 의미
음양의 조화가 이뤄지는 시간이라고 믿었음
주로 이 시간에 혼례를 치르게 됨

청사초롱

조선 최초이자 최고의 웨딩 업체
윤덕이 행수로 있는 업체
청나라의 '로랑'에게 인수당할 위험에 처함

수두매 (手頭煤)

수(手: 손 수), 두(頭: 머리 두), 매(煤: 그을음 매)
혼례가 진행되는 동안 부부의 맵시를 봐주고, 헤어 디자인을 하며, 메이크업을 담당하는자들
현재의 '스드메'와 비슷한 용어라고 생각하면 됨

행수 (行守)

과거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쓰던 칭호
상인 조직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
'청사초롱'의 윤덕

초파일 (初八日)

주로 음력 4월 8일을 의미하며, 흔히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도 부른다
연등행사를 진행하며 기념

칠거지악 (七去之惡)

전통 유교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었던 일곱 가지 정당한 이유
①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②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③ 부정한 행위나 음탕한 품행을 하는 것, ④ 질투, ⑤ 나병·간질 등의 유전병, ⑥ 말이 많은 것, ⑦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창작진의 글



극작·작사
김정민

프로포즈, 스드메, 청첩장, 예물, 예단, 예식장, 답례품, 주례, 사회, 축가, 신혼여행.

결혼식 하나를 위해 필요한 게 이렇게 많은데, 청첩장 하나를 고르는 데에도 사진을 넣을지 말지 봉투 재질을 뭐로 할지 직사각형으로 할지 정사각형으로 할지 내지를 넣을지 말지 스티커를 어디에 붙일지. 정말 결혼식이란 결정과 결단의 연속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보면, 지금과 비슷한 듯 다른 모습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옛날에도 혼례식 하나를 하기 위해 많은 과정이 필요했지만, 혼례식 자체는 마을 잔치의 성격이 더 강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청첩장을 보내고 말지 신랑신부가 고민할 일이 없도록. 지나가던 객들도 슬쩍 들어와 새로운 앞날을 축하해주고 탁주를 한 잔 얻어 마셔도 이상할 게 없도록.

윤덕은 청사초롱에서 가지각색의 혼례식을 해왔을 겁니다.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을 차리고 금사를 수놓은 혼례복을 입은 고관대작의 혼례식부터 물 한 그릇만을 떠놓고 올리는 혼례식까지. 무엇이 되었든 윤덕과 청사초롱의 식구들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새로 시작하는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

그런 귀한 사람들이 모인 연습실이었습니다. 함께 한 지 일 년도 되지 않았는데 십 년은 함께 한 것 같은 애정이 넘치던 나날들. 작품을 위해 사랑을 아끼지 않는 서울예술단 사무국의 모든 분들과 우리 배우들. 그리고 청사초롱을 위해 모인 사랑 가득한 스태프들.

이 소중한 사람들이 만든 무대를 위해 극장을 찾아주시는, 귀한 관객 분들께 감사드리며.
'대문을 활짝 열고 손님 맞아라!'

창작진의 글



작곡·편곡·음악감독
성 찬 경

2022년 공모를 시작으로 소재 개발과 창작을 이어온 <청사초롱 불 밝히려>가 2024년 리딩 공연을 거쳐 2025년 초연으로 관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4개 지역의 투어를 지나 다시 국립정동극장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청사초롱 불 밝히려>의 영광스러운 여정에는 참 많은 분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발칙한 상상력과 발군의 재미로 작품의 토대를 마련해주신 정민 작가님, 작품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섬세하고 세련된 언어로 무대 위에 구현해주신 기쁨 연출님과 희진 감독님, 저마다의 감각으로 무대에 숨결을 더해주신 디자이너 선생님들, 혼인잔치의 풍악을 담당하고 있는 5인조 라이브 밴드 연주자분들과 늘 든든한 힘이 되어준 김슬기 음악조감독과 정지연 음악조감독, 그리고 행복한 에너지로 작업에 임해주신 13명의 서울예술단 배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이 시작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창작자들이 마음껏 협업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 서울예술단의 결정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사람과 사랑을 노래하는 <청사초롱 불 밝히려>는 따스한 시선과 유쾌한 상상이 가득 담긴 작품입니다. 노들과 윤덕의 대사처럼 ‘두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낸 작품이기도 하지요.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하이브리드 편성으로 풍성한 음악이 펼쳐지는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특별한 하객이 되어주신 관객 한 분 한 분께 무한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창작진의 글



연출
이기쁨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띄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오래 지탱하는 것은 결국 드러나지 않는 진심이라는 것을.
<청사초롱 불 밝혀라>는 바로 그런 진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화려하게 증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하루를 묵묵히 지켜주는 마음.
누군가의 곁을 오래 지켜주는 다정함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따뜻하게 밝히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이 작품을 다시 무대에 올리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야기보다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윤덕의 혜안과 세상을 맑게 바라보는 노들이의 순수한 눈망울.
시간이 흘렀음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제게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깊은 배움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다시 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은 참 따뜻해졌습니다.
부디 윤덕의 깊은 시선과 노들이의 맑은 눈망울을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잘 알지 못했던 노들이가 윤덕을 만나 조금씩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이해하며 한 걸음씩 성장해 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여정은 비단 노들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오며 누군가를 통해 배우고
성장했던 시간과도 닮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무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불빛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청사초롱의 은은한 빛처럼 오래 머물며, 곁을 지켜주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작진의 글



무대디자인
남 경 식

안녕하세요, 무대미술 디자이너 남경식입니다,

서울예술단 창작가무극 <청사초롱불 밝혀라> 공연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연출부를 비롯한 많은 창작스텝들과 예술단스텝들, 무대위에 아름다운 배우들이 땀과 열정으로
정성껏 만들어진 공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람하시는 동안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 봅니다.

서울예술단의 창작가무극 <청사초롱 불 밝혀라>의 공간의 기준이 된 가장 큰 개념은 '겹'이었습니다.



주요한 고민은 서양의 결혼식문화와 한국적인 잔치날의 놀이를 극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안에서
조화롭게 그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서사에서 읽혀지는 다양한 공간을 함께 공존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극장 무대위에 관객을 올려 결혼식의 손님 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개축객석을
함께 디자인하였고, 그 개축객석의 관객은 잔치날의 손님들, 때로는 저잣거리의 사람들 처럼,
다양한 군중들로 비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간을 '겹'으로 다양한 레이어를 두어 보다 입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대는 'T' 형태의 런웨이 형태를 띠며, 오케스트라피트를 지나 관객석 앞까지 뻗어나갑니다. 이는 객석에
앉은 관객과의 거리감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밑그림이 되어 주었고, 중앙무대와 양쪽의 개축객석을
중심으로 공간의 상 하, 좌 우, 앞 뒤 를 열어 다양한 동선과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트 위에 무대는 '나루터' 라는 독립적인 공간을 가집니다, 후무대는 무대단, 장막의 커튼을 드리워,
그림자극과 무대위 무대로 활용하며, 입체감있는 공간과 표현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앙무대위에 대도구들은 다양한 형태의 쓰임으로 사용되며, 장면에 따른 배우들의 거점이 되어주기도하
고, 오브제로서의 역할로 활용됩니다, 상부에는 수많은 청사초롱이 걸려 아래 위로 전환되며, 공간을 무드
감있게 만들어 주며, 다양한 '겹'을 가진 무대는 배우들과 함께 결혼식 잔치날의 특별한 공간이 되어줍니다.

창작진의 글



조명디자인
정 구 홍

‘조선시대 웨딩플래너’라는 소재로 만든 작품인 ‘청사초롱 불 밝혀라’

조선시대에 웨딩플래너가 있었다는 점이 생소하고, 작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현대적이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재미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알려주는 등불, 혼례 행렬, 제례 의식 등에서 앞을 비추며 길을 열어주는 전통적 의미가 ‘청사초롱’.

길을 연다는 스토리텔링 구조로 플랜을 정하고, 한 점의 빛으로 시작해 은은하고 따스한 느낌의 조명을 사용하여 청사초롱이 안내하는 여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자 하는 콘셉트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청사초롱의 전통색인 청-홍을 현대적 톤으로 재해석해 매우 은은하고 화려하게 사용하고, 전통 패턴 고보를 활용하여 시대적 배경과 분위기를 표현하는 데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청사초롱의 불은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기다리고, 맞이하고, 보내고, 축복하는 자리마다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말 없이 빛났습니다. 이 작품의 불빛이 커다란 희망의 불빛으로 빛나길 바랍니다.



음향디자인
김 주 한

안녕하세요 창작가무극 <청사초롱 불 밝혀라> 음향디자이너 김주한입니다.

국립정동극장으로 소중한 발걸음을 해 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서울예술단과 함께하는 첫 작품이기도 하지만, 가무극이라는 형태에 가장 한국적인 스토리와 음악이 함께 하면서 어우러지는 하모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작품입니다.

서울예술단만이 할 수 있는 극 안에 녹아있는 진중하면서도 해학적인 것들이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공연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작진의 글



저는 이 공연을 크게 웨딩업체인 '청사초롱'에 속해 있는 인물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로랑과 지남으로 나누어 의상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웨딩업체 '청사초롱' 직원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번쯤 품고 사는
혼례식에 대한 환상을 실현시켜주는 인물들로서, 그들만의 유니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개성은 살리되 청사초롱의 대표적인 컬러인 블루와 레드를 공통된 포인트로 넣어
하나의 집단으로 보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의 린넨 원단들을 기본으로 하되, 체크 무늬의 모시 원단을
각 사람마다 다르게 포인트로 주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되 그 안에서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디자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랑과 지남은 이 공간에서 가장 이질적으로 보여야 하는 인물들로, 다른 인물들에게는 쓰이지 않는
컬러 배색을 주어 이들이 등장했을 때 다른 인물들과 섞이지 않고 따로 보이도록 설정해 보았습니다.

물 한 사발 떠 놓고 혼례를 치르는 것이 더 흥했던 그 시절, 그들의 혼례에 대한 꿈을 실현해 주었던 청사초롱의 사람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 겨울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길 바라봅니다.

의상디자이너
홍 문 기

창작진의 글



소품디자인
이 소 정

<청사초롱 불 밝혀라> 소품디자이너 이소정입니다.

조선시대의 '웨딩플래너'라는 설정이 정말 참신하고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웨딩플래너'라는 단어에서 오는 이미지가 현대적이고 이국적이지만, 과거에도 윤덕처럼 웨딩플래너의 역할을 하는 직업이 충분히 있을 법하다고 점점 대본 속 드라마에 몰입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도 않던 시대에서 헤어디자이너의 소품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려웠지만, 수염을 단장하자라는 연출부의 해석으로 여러 종류의 가위들을 활용해 액팅에 활용하고, 현대의 메이크업아티스트처럼 화장도구를 허리벨트에 연결해서 액팅할 수 있도록 하는 소품들로 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소품을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결혼을 하는 사람이든, 준비하는 사람이든, 누구라도 '혼례, 결혼'을 떠올리면 행복하고 설레고 벅찬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을 '청사초롱 불 밝혀라'를 통해 신나게 공감하고 감동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작진의 글



분장디자이너
이지혜

지난해 처음 이 작품을 만나 설렘과 긴장 속에서 첫걸음을 내디뎠다면,
올해는 작품과 함께 성장한 마음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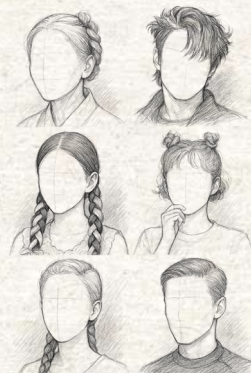
지난 1년 동안 여러 지역을 찾아 관객 여러분을 만나며 같은 작품이라도 공연을 올리는 공간과
배우들의 호흡, 그리고 객석의 분위기에 따라 매번 전혀 다른 무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 역시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배우 두 분이 함께하게 되면서 익숙했던 장면들에도 새로운 생명력이 더해졌습니다.
배우 한 사람 한 사람의 해석과 에너지는 각기 다르고, 그 변화에 맞춰 분장 또한 조금씩 새로운
모습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같은 디자인 안에서 또 다른 인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언제나 저에게
큰 즐거움이자 배움입니다.

분장은 단순히 외형을 표현하는 작업이 아니라 배우가 무대 위에서 인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공연이 끝날 때마다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더 나은 표현을 고민하며 작품과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연이 무대 위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배우와 스태프들의
시간과 정성, 그리고 보이지 않는 노력이 함께합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올해도 관객 여러분께 따뜻한
감동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공연 기간 동안 모든 배우와 스태프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연을 이어가시길 바라며, 마지막 공연까지 지금처럼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터뷰



김정민 작가 × 성찬경 작곡가 '청사초롱 불 밝히려' 창작 비하인드



Q. 공모전 선정과 낭독공연을 거쳐 드디어 본공연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금의 소감은?

김정민 작가

공모전부터 낭독공연 단계를 밟아오며 작품을 디벨롭했는데, 드디어 본공연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공모를 거쳐 실제 본공연 제작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평소 함께 작업하고 싶었던 서울예술단과 본공연을 준비하게 된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Q. '조선시대 웨딩플래너'라는 상상은 어떻게 출발했나요?

김정민 작가

공모전을 준비하며 서울예술단과 잘 어울리는 이야기가 무엇일지 고민하다가, 우연히 "조선시대 웨딩플래너 얘기할래?"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혼례와 결혼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사람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지금 관객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 최초의 웨딩플래너'라는 유쾌한 틀 안에서 관객과 함께 생각할 이야기거리들을 담고 싶었어요.

성찬경 작곡가

이 작품은 정말 '서울예술단에, 서울예술단에 의한, 서울예술단을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Q. 공모에 참여하실 당시, '창작가무극'이라는 장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나요?

성찬경 작곡가

공모 포스터에 적혀 있던 '창작가무극(한국적 창작뮤지컬)'이라는 표현이 아주 명확했어요. 한국적 소재를 바탕으로 노래·춤·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것, 그게 바로 창작가무극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김정민 작가

서울예술단에는 한국무용·뮤지컬·사물 등 다양한 전공의 단원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작품 안에서 여러 예술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결합됩니다. 그런 점에서 '뮤지컬'보다 예술단 고유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명칭이 '창작가무극'이라고 생각합니다.

Q. 공모전-낭독공연-본공연으로 이어지는 개발 시스템이 어떤 도움이 됐나요?

김정민 작가

신작 개발은 짧아도 2년, 길면 10년까지 걸리는데 창작자에게 그 시간은 정말 외로워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부 단원들과 리딩을 하고, 예술단과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체계는 예술단이기에 가능한 점이고, 앞으로도 잘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Q. 두 분은 여러 작품에서 호흡을 맞춰온 콤비로도 유명하죠. 이번 작품에서는 서로에게 어떤 자극을 주셨나요?

김정민 작가

저희는 학교에서 처음 만났어요. 교수님께서 "협업은 결혼과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실제 부부라서 그 말이 정말 실감나요. 뮤지컬은 글과 음악이 긴밀히 연결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원하는 원치 않는 집에 가서도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작품을 만들 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성찬경 작곡가

저는 일과 삶의 경계가 전혀 없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자, 때로는 단점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웃음).

Q. 인물 설정 중 가장 애정을 쏟은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김정민 작가

모든 캐릭터가 열 손가락처럼 소중하지만, 특히 '수두매'에게는 많은 신경을 썼어요. 셋이 함께 움직이되 각자의 개성과 말투, 취향이 살아 있어야 하고, 또 한순간에 딱 맞아떨어지는 팀워크도 필요했거든요. 그 '합'을 맞추는 데 가장 고민이 많았습니다.

Q. 음악적으로 이번 작품에서 주목할 지점은 무엇인가요?

성찬경 작곡가

피리·태평소·아쟁 같은 한국 전통 악기와 기타·클라리넷·색소폰 같은 서양 악기, 그리고 다양한 신디사이저가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편성입니다. 혼례 잔치라는 주제답게 신나고 리듬감 있는 넘버가 많아서 관객분들도 함께 들썩이게 되실 거예요.

Q. 낭독공연 이후 본공연 준비 과정에서 달라진 점이나 확장된 부분이 있다면?

김정민 작가

혼례라는 '식(式)' 자체가 작품의 걸을 감싸는 포장지라면, 그 안에는 결국 사랑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관객에게 어떻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캐릭터가 새로 생기거나 성격이 더 강화된 부분도 있고, 관계가 조금씩 조정된 부분도 있어요. 이야기의 결이 훨씬 명확해졌다고 느껴요.

Q.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김정민 작가

낭독공연 때 “과부재가금지법 설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이 법은 실제 존재했던 제도였어요. 그 무게와 인물들이 느꼈을 감정, 제약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일지가 고민이었습니다. 또 당시 사용되던 전통 혼례 용어와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 사이의 간극을 관객이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적·문화적 균형을 맞추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Q.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한 말씀!

성찬경 작곡가

〈청사초롱 불 밝혀라〉는 전통혼례를 소재로 한 코미디극이지만, 결국에는 사람과 사랑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마음껏 즐기시고, 좋은 에너지 가득 충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김정민 작가

라이브 연주, 관객 참여, 공감되는 이야기까지 다 담긴 작품이에요. 오감이 즐거운 시간 되실 거예요. 정동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CREDITS

공동기획 (재)서울예술단 (재)국립정동극장

제작 (재)서울예술단

단장 겸 예술감독 손재오

Creative Team

극작·작사 김정민

작곡·편곡·음악감독 성찬경

연출 이기쁨

안무 송희진

무대디자인 남경식

조명디자인 정구홍

음향디자인 김주한

의상디자인 홍문기

소품디자인 이소정

분장디자인 이지혜

기술감독 최정원

무대감독 한승윤

조연출 황정혜

조안무 한연주

음악조감독 김슬기 정지연

무대조감독 김진경

음향 관리감독 김경수

의상·소품 운영감독 최미나

제작PD 권수림 금보선

마케팅 정다정

홍보 마희선

Orchestra (연주) Keyboard 1
Keyboard 2
Clarinet/Alto Saxophone
태평소/피리
대아쟁

김슬기
정지연
홍준표
김세림 최한샘
송민주 심은서

음원제작 Music Programming
Recording
Mixing/Mastering

성찬경
사운드매니아 구자성
The_WAVE 홍정의

무대 장치 무대 제작
대표
제작팀

아트제이
이진경
조환준 이종민 윤진상
정병문 임학균
김대영 백종우 정재현

작화
대표
작화팀

작화공간
이남련
박지원 이재형 채근주 이주은

조명 조명 프로그래머
조명 어시스턴트, 오퍼레이터
조명 스탭

김대희
이채현
김경환 김병철 이준석
박병철 이가의

조명 장비
대표
조명 고보

유한회사 메이크센스컴퍼니
서재연
GOBO STUDIO

음향 협력 디자이너
오퍼레이터
RF엔지니어
테크니션
시스템
대표
음향 장비
대표

이정원
김진
목윤정 진희경
김민지
(주)문화음향
이정태
(주)더디자인스
권아롱

CREDITS

의상	의상 디자인 어시스턴트	송지민
소품	소품제작 제작팀	소작소 김연경 강미나 이수정
분장	분장제작 팀장 팀원	abyrne (에이바이미) 이혜진 황현희
무대 운영	무대 크루 운영 대표	스텝스 이재은
의상 크루		한복희 양인애
소품 크루		최혜림
자막 오퍼레이터		서예본
홍보 사진	에이아폴론	박귀섭
연습 및 공연 사진	Studio AL	김윤희
홍보 영상	피디-제이(PD-J)	박동준
공연영상 촬영	Ji아트 대표 촬영 및 편집 촬영감독	지화충 최진규 이진호 정병수
티켓 매니지먼트	Ticket Management by CLIP SERVICE	
	Director	우아영
	Ticket Manager	김세민
홍보물 디자인	studioSAM	이샘 최미선 고희민
웹디자인		김우연

정동극장 하우스	
매니저	백지민 신희정
부매니저	최희연
안내원	김소현 이다나 전예림 정지원 정혜린 최윤희 도희주 명재희 오유경 이민서 박서연 박신영 박예빈 성아연
(재)서울예술단	
이사	손재오 김상욱 이숙영 정유미 정찬일 강은영
단장 겸 예술감독	손재오
사무국장	류상록
공연기획팀	
팀장	주미석
	임아름 정다정 박태수 심수연 금보선 마희선 권수림
경영관리팀	
팀장	박순진
	진수영 임혜진 김연주 김보근
무대예술팀	
팀장	최정원
	김경수(음향) 최미나(의상소품) 박민애(반주)
단원	
지도단원	최병규
수석	김현아 박소연 안재홍
차석	고석진 김백현 금승훈 이종한 오현정 최인형 리은 김동호 유경아 김연 오선아 조근래 김건혜 박혜정 변재범 형남희 정지만 송문선 김용한 이혜수 이은솔 이기완 이한수 최병희 윤태호 박재은 서연정 오지은
서울예술단 프렌즈	김예은 박서윤 방윤서 신지현 윤규인 이상화 이신우 이유진 임다영 조혜지

CREDITS

(재)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	서승만
공연기획팀	
팀장	문효원
기획·제작	김준원 이호연 이수경
전문위원(세실)	최용수
음향감독(세실)	이선우
하우스매니저	백지민 신희정
청년인턴	최희연
홍보마케팅팀	
팀장	박진완
홍보·마케팅	이호신 조성민 김보연
언론홍보	김우령
온라인홍보	진푸름 김정윤 고송희
고객서비스	이효송
무대예술팀	
팀장	정동현
무대운영 지원	김재범
조명	임성우 김종임
음향	나인균 노영호
무대기계	백승민 백나경
무대	김형욱 이근영
문화사업팀	
팀장	구민호
사업운영 및 지원	배용희
기획·제작	이진수 김지선 김희영

예술단	
지도위원	이규운
무용 수석	나래
부수석	윤성준
	박소현 이혁 조하늘 전진홍
	박지연 이승민 우경식
타악 수석	이정대
	이기수 남용우 정상화 전준영
소리	강현영
정책기획팀	
팀장	한영화
감사·제도관리	김이슬
중장기발전계획	강현정
경영관리팀	
팀장	방정일
복무·계약·정보화	정지웅
대외업무·인사노무	정민주
회계·예산	성지원 이은진
안전시설TF팀	
팀장	심효섭
기계·통신·전산	박경석
전기·조경·기자재	임승준
편의시설운영	차선미

서울예술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서울예술단은 1986년 창단 이래 연극·음악·무용을 융합한 '창작공연'을 중심으로 한국적 가치와 동시대적 감각을 담은 공연 콘텐츠를 개발·제작해 온 국공립예술단체이다. 2026년 창단 40주년을 맞은 서울예술단은 한국의 역사·문학 등 문화적 자원뿐 아니라 소셜·웹툰 등 동시대의 다양한 원천 콘텐츠를 현대적인 공연언어로 재해석하며 독자적인 창작 레퍼토리를 구축해 왔다.

작품의 개발과 초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재공연을 통해 우수 창작 IP를 대표 레퍼토리로 성장시키는 한편, 새로운 소재와 형식에 대한 실험을 통해 창작가무극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영상·LED·로봇 등 디지털 기술과 무대예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공연미학과 제작 방식을 모색하며, 변화하는 공연환경에 대응하는 미래형 제작모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순회공연을 통해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공연·쇼케이스 및 창작 IP 라이선스 수출 등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 공연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유통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창작 콘텐츠 발굴·개발과 창작인력 육성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내 공연예술 생태계의 성장과 한국 공연예술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스펙트럼(SPACtrum) 유료회원 혜택

1. 정기공연 할인(기본 30%)

- 할인 매수 : 작품 당 4매
- 예매처 : 유료회원 전용 예매처를 통해 예매 가능

2. 정기공연 사전예매

- 권종/매수 : SPACtrum 할인으로 작품당 4매

3. 각종 이벤트 초대 자격 우선 부여

- 사전 신청자에 한해 초대
- 참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 진행

4. 공연정보 이메일 발송

- 회원 기간 : 회비 납부일로부터 1년간
- 연회비 : 2만원
- 회원 가입 : 서울예술단 홈페이지 www.spac.or.kr
- 문의 : 02-523-0986

2026년 서울예술단 라인업



예술감독 유은선
극본·연출 고선웅
공동작창 유수정 한승석
작곡·음악감독 한승석

귀 리

토끼의 팔랑 八難



2026.9.3.木 — 6.日

국립극장 | 해오름

예매 및 문의 | 국립극장 02-2280-4114 ntok.go.kr NOLE티켓 1544-1555 nol.interpark.com/ticket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26-2027



예술감독
유은선

멘토

고선웅 한승석

작가

강예진 김태희

장혜린 조남수

작창

강나현 이연주

장서윤 정지혜

2026 국립창극단

창극작가 프로젝트 시연회
Playwright Project

2026.11.7.토 — 8.일

15:00

국립극장 하늘

창작가무극 <청사초롱 불 밝혀라>
M1. 청사초롱 불 밝혀라

김정민 작사
성한경 작곡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하는 신시(3~5시)의 끝자락.
담벼락을 따라 길게 줄지어 매달려 있는 청사초롱.

윤덕 (구경꾼에게) 청사초롱의 혼례식은 처음이신가? (미소) 그럼 눈 하나 깜빡하지 말구 똑바로 보시게.
자. (짧은 사이) 불을 밝혀자. (음악 cue)

윤덕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세차게 몰아붙이는 음악 소리와 함께 초롱에 하나 둘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새벽과 노을을 닮은 앓은 사 너머로 설레는 빛이 일렁이고, 초롱들이 줄지어 있는 그 시작에서 있는 윤덕.
오늘은 바로 조선 최고의 혼인 전문 업체인 '청사초롱'의 혼례식이 있는 날.
구경꾼이 한가득 늘어서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혼례식을 지켜보고 있다.

♩ = c. 212

p *risoluto*

♩ = c. 106

f *rhythmically*

6

윤덕

곤지

임오

이철

구경꾼

청 사

청 사

청 사

청 사

청 사

청 사

f *unis.*

청 사

ff

Copyright © 2025 김정민 & 성한경
All Rights Reserved

2
9

초 롱 불 밝 혀 라 긴 인 생 두 번 은 못 밝 힐

초 롱 불 밝 혀 라 긴 인 생 두 번 은 못 밝 힐

초 롱 불 밝 혀 라 긴 인 생 두 번 은 못 밝 힐

초 롱 불 밝 혀 라 긴 인 생 두 번 은 못 밝 힐

초 롱 불 밝 혀 라 긴 인 생 두 번 은 못 밝 힐

12

불 청 사 초 롱 불 밝 혀 라 짧은 인 생

불 청 사 초 롱 불 밝 혀 라 짧은 인 생

불 청 사 초 롱 불 밝 혀 라 짧은 인 생

불 청 사 초 롱 불 밝 혀 라 짧은 인 생

불 청 사 초 롱 불 밝 혀 라 짧은 인 생

창작가무극 <청사초롱 불 밝혀라>
M3. 언제쯤이면 어느 때가 오면

김정민 작사
성한경 작곡

노들 : 살아생전에 그런 인연을 만나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혼례도 맘대로 못하니 원.

♩ = c. 70

p *mp*

(E. Piano - R&B style)

7 *mp*

8

질 신 도 짝 이 있 다 말 한 사 람 은

mf

10

8

꿈 에 도 생 각 하 지 못 했 을 기 야 위 어 운 명

Copyright © 2025 김 정 민 & 성 찬 경
All Rights Reserved

2
12

의 껍을 만나도 그 중에 어떤 인연은 세상의

14

축 하도 받지 못한다 는 걸 평생을 함 께 할 사람 을 만

mf

17

나도 따 지 고 따 저 야 할 게 너 무 나 많 네 우 위 어 마음

mf

20

이 흐 르 는 대 로 자 연 스 러 운 그 대 로 만 날



3

22  *f*
수 있다_ 먼 얼마나 좋_을 까_ 언제쯤 이 먼 어느 때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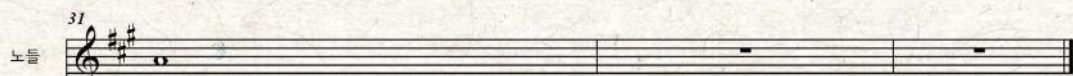


25  *f*
오 먼_ 모든 인 연 이_ 사 랑 받 게_ 될 까_ 그 때쯤 이



28  *f*
먼 그 때 가 오 먼_ 작 은 바 람 에_ 맘 껏 흔 들 러 도_ 될_



31  *mp*
까

